

청와대 개방에 북·서촌 상권 살아날까... 기대반 우려반

관광객 늘어 상권 활성화 기대감
일부 상가 매입가 크게 오르기도
“규제 묶여 개발 힘들 것” 의견도

청와대 개방으로 서울 북촌과 서촌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서촌은 한옥보존지역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개방이 오히려 상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평일인데도 거리에는 연인의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북적였다. 북촌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신 모 대표(77)는 “청와대 개방으로 상가의 호가가 크게 올랐다. 아직 매매는 없지만 평당 3000만원이 올랐다”면서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였다.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어깨를 펴지 못했던 북촌 상인들은 청와대 개방으로 기대감



서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매물이 붙어 있다. 다수의 보류 매물이 눈에 띈다. /신하은 기자

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식당 ‘플로라’의 윤석희 팀장은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감이 있다”며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개방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로구 효자동, 체부동 등 서촌일대도 청와대 개방과 서울시의 건축물 규제 완화 소식으로 대부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서 다시 내놓고 있다.

서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청와대 개방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가 매매 가격은 약 20% 정도 올랐다”고 했다. 그는 또 “주변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보류되는 매물이 많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을 녹지와 나무숲을 만들 것이다.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하

반기 송현동 부지 전체를 녹지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녹지 광장에 광화문과 북촌, 청와대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촌 일대에선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의 경우 실제로 몇 억원씩 오른 상태”라며 “추후 관광객이 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기대감 때문에 평균(평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올랐다”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놓고 있다”고 했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을 보유한 사람도 있고 매매 진행 과정에서 가격 올리는 사람도 있다. 매입가가 평당 1억원에서 1억2000만~1억5000만원 정도로 약 20~50% 올랐다”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5억원이었던 매물이 18억까지 호가가 올랐다. 몇 년 동안 팔리지도 않았던 매물 광고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했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청와대 개방에도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북·서촌 일대 부동산은 1종 지구단위, 한옥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왕산과 경복궁 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고도제한도 개발을 막는 이유 중 하나다.

서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 제한이 많고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높은 건물이 많아지거나 개발된다면 서촌의 특색을 잃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방이 오히려 상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북촌한옥마을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50)는 “청와대 개방은 양날의 검이다”라며 “북촌은 조용한 동네이고 갤러리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밀려오면 떠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대환·김정선·신하은·원관희 기자

kd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예탁원, 부산 경남여고에 명상숲 조성

이팝나무 등 식재... 산책로 조성
“탄소중립 등 교육의 장 활용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1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명상숲 완공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경남여고 내 720㎡ 부지에 탄소흡수에 도움이 되는 이팝나무, 산수유 등 교목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명상숲이 학업에 지친 학생에게는 쉼터의 공간으로, 요즘 중요성이 더해가는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춘 경남여고 교장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



지난 11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과 정유진 경남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이 학교명상숲 완공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용할 수 있는 명상숲을 만들어준 예탁결제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학교명상숲 조성사업은 한국예탁결제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헌사업의 주요 축으로서 부산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2018년 개성고를 시작으로

2022년 경남여고까지 부산지역 총 8개 학교에 조성했다. 예탁결제원은 탄소중립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명상숲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한금융 ‘신한디지털포럼’ 12회차 강연 성료

9월까지 매월 2회씩 진행

신한금융투자가 3000개 법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참여하는 언택트 강연프로그램 ‘신한디지털포럼’ 12회차 강연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2회차 강연은 12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상훈 투자전략부장, 이정민 수석연구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동향과 한국 기업 컨센서스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을 포함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ESG의 특성과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했다.

신한디지털포럼은 9월까지 매월 2회씩 강연을 진행하며, 사전에 회원으로



등록한 3000여 법인의 CEO와 CFO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수강 가능하다. 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법인고객은 신한금융투자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 13회차 강연은 5월 26일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국제정치 메가 트렌드와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NH투자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개점

주식중개·자산관리 영업 강화 추진

NH투자증권 베트남 자회사인 NH 시큐어리티즈 베트남(NHSV·NH Securities Vietnam)이 12일 하노이 지점 개점식을 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하노이 지점은 베트남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호안끼엠 지역에 위치했으며, 주식중개와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2009년 현지 증권사인 CBV증권과 합작 법인으로 베트남

에 진출한 이후 지난 2018년 100% 지분인수를 통해 NHSV를 출범시켰다. 동남아 이머징 마켓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영업조직 확충 및 IT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반 구축에 집중해 왔다. NHSV는 2019년부터 흑자 전환했으며, 2021년에는 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최대 인터넷은행 플랫폼인 티모(Timo)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전략 온라인 특강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16일 저녁 8시부터 ‘고금리·고물가 시대, 현명한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등에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갑수 투교협 연구위원의 사회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대담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고려해 총 2부로 나뉘어 온라인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회계편람’ 발간

특수분야·비영리조직 등 총망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회계편람’을 최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편람’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회계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회계편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특수분야·비영리조직·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법무부가 고시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추가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

론도출 근거와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을 연계 수록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문을 각각의 기준서에 수록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의 실무적용능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2022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도움을 주는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